

2023. 9. 5.(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
한강이용증진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9쪽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3780-0870
한강이용증진과장	이진오	3780-0661
교통기획팀장	유형석	2133-2212
노선팀장	박흥식	2133-2281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2133-2431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닷 올린다.. 내년 9월 운항 목표로 추진

- 9.4.(월) 서울시-이랜드그룹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 체결
- 서울 주요 지역 연결 노선, '아라한강갑문~여의도' 노선 등 복수 노선 운영 검토
- 육상 대중교통과 동일한 교통카드로 이용토록 추진... 활성화위한 조례 제정도
- 오 시장 "리버버스 통해 생활 교통편의, 한강 활용 획기적 변화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한강을 무대로 한 수상교통 시대를 활짝 연다. 서울시내 주요 주거·업무·관광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아라한강갑문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한강 리버버스'가 내년 9월 운항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리버버스는 한 번에 2백 명 가량이 탑승할 수 있어 수송력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육로를 이용하는 버스 대비 이동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아라한강갑문~여의도' 노선에 조성하는 등 복수의 노선 운영을 검토 중이며, 기존 육상 대중교

통인 버스·지하철 등과 동일하게 하나의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9.4.(월) 리버버스를 운행할 (주)이크루즈가 속해
있는 이랜드그룹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
한다.

<‘아라한강갑문~여의도’, 서울 주요 지역 등 복수 노선 운영, 버스·지하철 환승할인 >

- 먼저 서울시는 리버버스 운항이 시작될 내년 9월부터 원활하고 편리
한 선착장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시스템 구축에 집중
한다는 계획이다.

- ‘아라한강갑문~여의도’ 노선은 약 30분 소요돼 버스를 타고 김포골
드라인 또는 지하철 5호선으로 환승, 여의도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
교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15분을 유지할 계획이다.

- 시는 올해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
해 김포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새로운 대안 교통수단으
로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 시는 행주대교 남단과 여의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김포
시민의 선착장 접근성, 출근 시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김포아라대
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에 보다 인접한 ‘아라한강갑
문’에 선착장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 운항간격(15분)은 리버버스가 선착장에 도착(접안)한 뒤에 이용객
이 안전하게 승하선하고 다시 출발(이안)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

중교통 수단 간 연계에 있어 최적의 운항간격으로 보고 있다.

- 시는 또 김포와 서울을 잇는 광역노선과 함께 서울 시내 마포·여의도·잠원·잠실 등 주요 주거지역, 업무지역,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도 내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시가 도입할 예정인 리버버스는 199인승으로, 시내버스 1대가 약 50명을 수송한다고 가정하면 버스 4대 가량의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또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용요금을 버스,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과 동일한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환승할인도 가능하도록 인천시·경기도 등과도 협의할 방침이다.
- 아울러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 선착장 접근성, 이용요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난달부터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요 주거·업무지역 이동수요 등을 분석, 올해 중으로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또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신설·조정, 필요시 한강둔치로의 차량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도로 정비 등도 병행하고 선착장 주변 따릉이 스테이션 설치, 자전거·개인이동수단(PM) 휴대 탑승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등 타 육상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이용 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9.4.(월) 리버버스 추진 관련 서울시-이랜드그룹 협약...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서울시는 9.4.(월) 리버버스를 운행할 (주)이크루즈가 속해 있는 이랜드그룹과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한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 이 날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종양 이랜드그룹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의 (주)이크루즈는 30년 이상 선박을 운항해 온 업체로 지난 7월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 협약서에는 ▲리버버스 운영 조기 안착 및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선착장 설치 및 접근성 개선 ▲리버버스 선박 적기 도입 및 안전 운항 ▲선착장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친환경선박 도입과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 적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공동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간다. 서울시는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친환경 선박 보급 활성화를 위해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23.8.24.~9.13.)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올해 안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 공동협력 협약에 따른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이크루즈와 협의 중으로, 9월 중 실시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실시협약에는 선박의 제원, 사업의 범위, 서울시와 (주)이크루즈의 역할, 사업 운영계획 수립, 운항노선·시간 및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 또한 시는 리버버스 선박의 조기 확충 및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개발사업단이 참여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 최종양 이랜드그룹 부회장은 “한강 리버버스는 수도권에 고착화된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뿐 아니라 서울시 3천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최근 ESG 경영이 화두인 만큼 전기 추진 및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도입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은 “현재 한강은 수변을 따라 숲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계시지만 연계성이 늘 고민이었다.

그런데 이제 리버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께서는 편리한 수상교통을 통해 강 건너, 강 원거리 등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게된다. 생활 교통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한강 활용도 역시 상상할 수 없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23. 9. 4.(월) 09:45 ~ 10:05(20분)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행사내용 : 한강 리버버스 사업추진 공동협력 협약식
- 참 석 자 : 서울시장, 이랜드그룹 부회장

□ 행사순서

일 정	시 간	비 고
협약식 개최	09:45	
개회 및 내빈소개	09:45~09:47	
협약식 안내	09:47~09:50	▸ 진행: 한강전략사업부장
경과보고	09:50~09:52	
인사말씀	09:52~10:00	▸ 이랜드그룹 부회장, 서울시장
협약서 서명 교환	10:00~10:03	▸ 이랜드그룹 부회장, 서울시장
기념촬영	10:03~10:05	
협약식 종료	10:05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이랜드그룹(이하 “이랜드”)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한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이랜드가 상호 협력하여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리버버스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 ① 서울시는 리버버스의 조기 안착 및 안정적인 운항을 위하여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서울시는 리버버스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한강 내 주요 거점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선착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이랜드는 리버버스의 적기 운항을 위하여 선박 도입 및 도선장 설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이랜드는 리버버스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와 함께 선착장 등의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서울시와 이랜드는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선박을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⑥ 서울시와 이랜드는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이용을 위하여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를 적용한 선박의 도입 및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⑦ 서울시와 이랜드는 리버버스에 대한 인식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조(세부시행)

리버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주)이크루즈 간 실시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리버버스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행과정에서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로 노력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리버버스 사업의 종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당사자는 1부씩 보관한다.

2023. 9. 4.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이랜드그룹 부회장 **최 종 양**